朝鮮日報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大正十四年七月二十八日 (火曜日)　第一千七百八十三號　【一】
夕刊朝刊合六面

朝鮮日報 定價 一個月 八拾錢 三個月 貳圓 四十錢 六個月 四圓 五十錢 一個年 八圓 四十錢 地方 必先金
廣告料 五號活字 一行 壹圓 …
發行所 朝鮮日報社 印刷人 金東成 編輯兼發行人 金東元

社說

中國今後의 政情은 如何

—冷靜한 現實의 正觀—

一

開放期에 들어섯든 世界의 政局은 英國의 炭坑夫들이 비롯한 勞働者들의 同盟罷業의 騷動으로써 하야 적이 炎熱中에 喘息하는 者들로 하야금 慘澹한 氣分에 緊張케 할 뿐이오 協約의 破裂과 變動을 來케 하는 日本의 政局이 또한 저이 停滯된 斯界의 空氣를 振盪케 하는 바 잇다 그러나 激甚한 亂狀으로부터 沈靜한 睡眠狀態에 들어간 中國의 政情이야말로 그 今後의 形勢가 매우 容易치 안한 바 잇다 할 것이다 吾人이 前後를 거듭하야 論評함과 가티 中國의 示威動亂은 國際的으로 紛糾錯綜한 外交關係를 誘致하엿슬 뿐 아니라 그의 內政上으로 奉天派를 筆頭로 한 數個 軍閥의 橫暴의 機會의 增長을 보게 되어 자못 重大한 形勢를 釀成하엿슴으로써이다 그리고 吾人이 最初에 指摘한 內政 및 外交의 難關中에 잇서서 자못 進退兩難한 窮地에 빠질 段政府의 處地는 今後 關害하게 그 影響을 밧게 될 것이다

二

最初 示威動亂의 氣勢가 旺하고 中國民의 排日英熱이 甚하여 질 때 馮玉祥等의 惑星的 人物은 배로 對英開戰의 要를 放言하엿다 한다 그가 動搖된 群衆心理에 投合하야 後日의 潛勢力을 扶植코저 함임은 勿論이어니와 그를 口實로써 張作霖의 奉天軍에 對한 自派武力의 擴張을 圖하고저 하는 掩蔽手段에서 나왓는 것이오 排日英의 示威에 興奮되어 軍閥의 巨頭等으로 武力의 擴張과 및 軍隊의 移動을 恣意로 함을 合理化케 하야 그로써 外敵에 潛伏케 하는 示威者 法과 가티 錯認한 者ㅣ 잇섯다 할진대 그는 자못 恢復할 수 업는 失策으로써 彼等은 國民의 莫大한 消悔의 因이 될 것이다

三

昨日에는 一報가 잇서서 上海勞働團은 戒嚴司令暗殺의 決議를 함을 報하니 그는 곳 奉天派로써 掌握된 上海의 戒嚴司令部가 示威動亂의 策源地가 되든 商工會 및 海員組合本部等에 閉鎖의 命令을 내림에 對하야 報復手段을 講究코저 함에 因함이라 對日英 永久的 經濟斷交를 揚言하고 彼等國民의 熱血이 바야흐로 沸騰되든 當時 奉天城內에서는 王永江等의 暴力處分에 依하야 示威를 未然에 彈壓케 하고 暗暗이 民衆의 興奮된 心理를 利用하야 大軍으로써 江蘇를 中心으로 한 長江의 下流를 彈壓케 한 後 이제 徐徐히 民衆抑壓의 露骨의 手段으로써 하니 이는 곳 張作霖氏 一派의 暗澹한 陰謀의 神機妙算에 依함이오 對外 懷心에 熱中하야 그의 軍閥의 跳梁을 未然에 監視하는 冷靜을 일흔 것은 자못 容易치 아니한 民衆의 創痍이라 할 것이다 이제 奉軍이 滿滿한 上海의 奉天派는 浙江의 孫傳芳을 易易하게 擊破할 것을 放言하고 長江一帶를 直隸派의 無爲할 것을 鼻笑하니 이는 中國民의 多大한 犧牲이 外敵의 逆勢를 보기 前에 먼저 그 軍閥의 增長을 嘆嘆할 밧게 업시 될 것이다

四

客歲二十三日 發電은 日英米 三國政府는 中國問題에 關하 아 非同盟罷業을 誘致함을 報하고 그의 內容으로는 아모 生新한 바 업시 오즉 列國의 對한 現行條約의 保障을 前提로서 中國의 迅速한 平和의 克復이 아니니 列國은 好意와 同情을 表할 수 업슴을 通告하엿스니 이는 中國民의 急速히 對外態度를 緩和할 것이 안이면 그는 곳 中國民의 不幸을 더욱 延長케 할 것을 婉曲指示함을 意味하는 바이라 이는 實力勝敗로 現代國際關係에 잇서서 자못 必然한 現象이오 彼等列强들은 示威的 亂中에 자못 小心翼翼하야써 中國民의 反感을 回避하기에 努力하든 바를 平靜으로 돌어간 오늘날에 잇서 다시 그 冷酷한 實利의 克復을 實現코저 함이라 이는 怒罵할 수는 可할지언정 그로써 彼等 列强의 狡猾한 態度를 責할 수 업는 바이다 그러나 안으로 軍閥의 跋扈과 民衆의 橫議를 보고 밧그로 列國의 頑强한 外交關에 當面한 段政府의 處地는 果然 어더할가?

五

示威動亂이 劇甚하든 當時 段政府는 幾次의 對外抗議와 및 軍閥에 對한 民衆附和의 暗示로써 자못 天下의 人望을 維持키에 汲汲하엿스니 이는 段政府의 愛國의 誠心을 感歎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薄弱한 基礎가 民衆에게 迎合하지 아니할 수 업슴을 말함이라 그러나 그의 十二個의 要求는 容易히 列國의 受納한 바도 되지 아니하고 國際關稅會議 開催를 揚言하든 米國도 아즉 日英과 合同하야 中國을 說服키에 努力하는 中이니 이는 段政府의 處地가 안으로 奉天派等 橫暴한 軍閥을 從順케 하기 不能하고 밧그로는 列國의 頑强한 態度를 濟치 못하며 因하여는 憤慨하는 民衆으로 그의 歸一할 바를 알지 못하게 함이니 그는 곳 段政府의 遺憾이오 또 中國民의 不幸임을 意味하는 者이라 그러나 冷酷한 現實의 正道는 이러한 混亂狀態에 빠진 國民으로 하여금 天來의 偉傑을 邀待할 수 업슴을 表明하는 바이니 中國民 今後의 運命은 依然한 外敵과 및 그의 軍閥의 交攻하는 中에 非常한 犧牲의 苦鬪를 할 밧게 업슴을 爲하야 慨歎하려 한다

佛國政府가 華府條約批准送致

來五日에 寄託手續完了

…國條約及中國特別關稅 … 八月一日「와싱톤」에 到着 … 더이며 伊太利白耳義의 …

米國前國務卿 「부」氏逝去

突然卒倒하야

… 年平和를 爲하야 盡力한 … 逝去에 對하야 哀惜에 不堪 … 弔電을 發하엿더라

◇同別報

幣原外相吊電

保障條約 交涉方法

(十六日發) 當地政界에서는 保障條約의 交涉에 一段의 方法으로서는 左欄의 方法中 一을 選할 것이라더라

一、 … 國에서 保障專門會議를 …

外相會議를 開催할 事

自二十四年의 또 스案會 … 한 大規模의 會議를 開催

外相「부리안」氏는 第二 第 의 外相會議를 倫敦 … 事에 贊成의 意를 表하리라더라

奉天南滿製糖 日本人職工不穩

原因은 日本人職工의 馘首

… 國人職工의 同盟罷業이 … 工三十餘名이 結束하야 立以來動務한 職工增田

對中文化會議

今秋上海에 開催

… 事現日華協會幹事)를 會議에 列席케 하기로 되 日에 東京發上海로 向할 二十七日午前九時부터 에서 日本委員九名은 右 協議하엿다더라

問題의 稅制案은 二十九日閣議에 上程不能

… 其時期가 一致하는 세음 는 設或審議時期가 同時 라도 稅制案과 豫算案과 야 審議할 것이라는 見解

上程延期理由

政友側回答關係

(東京電) 濱口藏相 緊急으로 된 稅制整理案이 政友出身閣僚의 前途에 暗雲低迷가 되나 政府는 二十九日閣議에 附議할 希望이 잇서 其前에 贊否의 回答을 得하고 십흔 旨를 安達遞相을 通하야 政友에 關 하엿더라 … 條에 對하야 政友側은 黨內外의 事情이 잇서 井九日閣議에 回答이 困難할 模樣임으로 政府는 二十九日閣議에 上程키로 延期하고 八月五日 閣議에 上程하기로 內定하여 어대의 지든지 政友側의 諒解를 求하기로 하엿더라

特惠關稅法을 朝鮮에 施行

今日官報로 發佈

(東京電) 特惠關稅法(大正十四年法律第五一號)은 朝鮮臺灣及樺太南洋에도 施行케 되어 右勅令은 二十八日官報로 公布될 터이라더라

辭令

外務書記官兼商工書記官 齋藤良衛
任總領事(三等) 靑島在勤을 命함
(東京電)

奉天在留同胞 水災救濟會組織

各團體와 有志의 聯合으로

今般 故國의 慘憺한 水災의 報道를 接한 奉天在留同胞들은 二十四日午後七時에 市內有志林漢龍氏家에 各團體及有志十數名이 會合하야 協議한 結果 朝鮮水害救濟會를 設置하기로 決定하엿는 바 當席에서 任員을 如左히 選定하엿다더라

◇任員

姜元永 金炳泰 崔士霖 劉宗熙 金洪述 洪淳文 崔聖模 羅昌錫 高丙瓚 李英善 金義宗 安商瓚 金周益 林漢龍 金淳貞 裵亨龍 金在欽

◇常務委員

金義宗 安商瓚 金周益 林漢龍

◇締切期間 十月末日外지 (奉天)

靑年會에서 水救金募集

三隊에 分하야

安城靑年會에서는 今般水害罹災同胞를 救濟코저 去二十四日午後五時부터 常務執行委員會를 本社安城支局內에 開하고 「亞」代各支局後援下에 義捐金을 募集키로 決議하엿는데 그 募集方法及委員과 分擔區域은 左와 如하다더라

▲義捐金은 全部 物品
▲募集期日은 八月十日外지
▲募集金 收合은 朴勝祖
▲送金先은 京城水災救濟會
▲委員 諸氏의 分擔區域

東里·末里 … 朴勝祖 尹孝炳
西里及石井里 金相德 林時培
禹鍾安 … 堤基里及舖基里 金昌培 朴建鎬 朴容泰
外村金台榮 (安城)

筏橋水救講演

三隊에 分하야

全南寶城郡筏橋에 잇는 基督勉勵靑年會主催 當地有志靑年諸氏가 去二十日午後八時에 同禮拜堂에 모히여 今番長霖洪水로 生命이 無幾한 漢江沿岸과 嶺南一帶의 罹災同胞를 救키 爲하야 巡回講演隊를 組織하고 全南東部十郡을 巡講하기로 作定하엿는데 그 第一着手로 七月廿七日에 筏橋를 마치고 八月三日부터 三隊로 分하야 各處로 出張할터이라는데 血肉이 가는 우리 同族의 慘狀에 만흔 同情을 바란다 하며 더욱 後援及巡講日割은 如左하다더라

後援 筏橋靑年會、湖南佛敎靑年會時代、東亞、朝鮮日報支局

(巡講日割)

第一隊

麗水郡南面牛鶴里 八月五日 安島六日 突山七日 麗水邑八日 光陽蟾居十日 光陽邑十一日 順天邑十三日 別良面十四日

演士 金容國 曹乘鶴 朴平準

日人面長을 排斥

靑年會外十五團體發起로

鎭海面民大會를 開催하고

慶南昌原郡鎭海面은 元來指定面으로 現在日人面長職에는 選氏가 在任中인바 오날에 이르기까지 面行政上에 朝鮮人과 日本人差別이 너무 甚하야 여러가지로

偏한 的行 爲가 만허왓슴으로 朝鮮人側은 참다 못하야 去三月中에 面民大會準備會를 열고 그 席上에서 面長의 非行을 調査시켜오 하야 同面行政調査委員을 選定하엿던 바 最近에 겨우 終了되엿슴으로 지난十九日午後一時에 昭和洞勞動夜學會舘에서 鎭海

靑年會外 十五個團體主催下에 面民大會를 開催하엿는데 當日은 九刻前부터 群衆이 蝟集하야 會場內外에 立錐의 餘地가 업게 되엿슴으로 到底히 狹窄한 이 場所에서는 議事를 進行할 수 업슴으로 場所를 變更하야 大市場野外에 옴겨 다시 開催하엿는 바 當日은 警戒가 非常히 嚴重하야 正私服巡査의 臨場이 만헛는데 勞明에 朱佩和氏의 司會로 開會 辭가 잇섯고 臨時議長으로 新任된 姜永模氏 司會로 前記 朱氏의 四十六項에 亘한 面稅政調査事項의 仔細한 報告가 잇섯고 또 面民對金副面長間의 逐條質問戰이 開되야 金副面長으로부터 幾條의 政缺陷을 自白이 잇슴 ㅣ 음에 마츰 나리든 當日의 暴雨는 더욱 甚하야 到底히 屋外集會를 繼續할 수 업슴으로 再開를 約하고 同五時半에 閉會한 後 다시 二十一日午後二時에 繼續開會하야 前會未盡事項을 討議할새 同六時에 至하야 臨場警官으로부터 時間經過와 決議事項에 對한 注意가 數次 잇서 오다가 同六時半頃에 至하야 突然

集會禁止 를 命함으로 不得已 散會하엿는데 아직 未了된 몃가지 事項이 잇섯스나 當日 決議된 것은 如左하다더라

一、 面稅政에 關한 件
一、 吹島漁業權專議 (以下二十一項省略)

그리고 우리와 가튼 稅政事實에 對하야 綠田面長 以下 各係責任者에 辭職을 勸告할

文川靑年討議

咸南文川靑年會에서는 同會의 主催下에 去二十五日午後九時부터 當地耶蘇敎禮拜堂內에서 討論會를 催하얏는데 當日은 雨天임에도 不拘하고 聽衆은 多數集合하야 盛況을 呈하얏는데 演題及演士는 …

江華水災救濟

江華邑에서는 今番各處水害罹災同胞를 爲하야 江華中央靑年會外 同盟會、布木商組合、醫商組合、無名同盟會 에스俱樂部、理髮組合、耶蘇敎會、朝鮮聖公會、女子靑年會等各代表 十가지 난 二十三日午後五時에 江華東亞支局內에 모여 水害同情金을 募集하기로 協議하얏다더라(江華)

儒林團體에서 養蠶傳習

産業奬勵를 爲해

安邊郡儒林進學會에서는 今回同會事業으로 養蠶機業傳習所를 設置하고 그 開所式을 本月十八日午後二時부터 安邊孔子廟內에서 擧行하얏는데 그와 同時에 第一回養蠶機業傳習生의 入所式을 擧行하얏는 바 生徒는 十四名의 入所者가 잇섯고 來賓三十餘名의 參集者가 잇서 盛況을 일우엇다더라(元山)

敎育學術宣傳

展覽會音樂會 活動寫眞으로

全北敎育會에서는 二十七八兩日을 利用하야 全州女子小學校와 女子普校場內에 學術展覽會를 開催하고 一般에게 學藝를 普及식힌다더라

別項 敎育會에서는 前記展覽會時期를 利用하야 學業奬勵를 爲主로 二十七日夜는 活動寫眞 二十八日夜는 音樂會를 全州座에서 開催하고 一般에게 無料觀光을 許한다더라(全州)

果物同業組合

會員百餘名에 達

江西郡에는 果園栽培者가 百餘名에 達하나 于今까지 果物同業組合이 업슴을 遺憾으로 하야 去二十四日當郡有志의 發起로 同組合發起人會를 開하고 事業進行을 決議하엿는데 任員은 左와 如하다더라

會長 金議善 書記 禹章烈
會計 崔貞祥 執行委員 金基碍 禹章烈 鄭台峴(江西)

聯合講演會

群山學友會主催

群山留學生學友會에서는 夏期休暇를 利用하야 地方文化의 發展을 도음고저 各團體聯合講演會를 來二十九日에 當地米友俱樂部에서 開催할터인바 當日演題와 演士는 아래와 갓다더라

▲나를 爲하야 基督靑年會 朴相健
▲自然과 社會 群山勞働靑年會 金永輝
▲社會惡과 人生苦 留學生學友會 金容澤
▲未定 群山靑年會 金鍵
▲搾取階級과 被搾取階級 群山靑年會 金昌洙(群山)

平南各署犯罪統計

平安南道各警察署의 六月中 犯罪統計는 如左하다더라(平壤)

罪名	發生	檢擧
竊盜	一〇件	二三件
强盜	三七〇	三〇五
殺人	五	五
放火	三	三
詐欺	八七	九五
橫領	五〇	五七
傷害	九八	一〇五
賭博	七	八
其他	一〇八	一二三
計	七三八	七一四

收繭額 三萬貫

端川郡의 大成績

咸鏡南道端川郡蠶業界가 近年에 이르러 非常한 發達을 이루어 오든 中今年에는 氣候의 順調와 蠶種選擇의 適宜와 桑葉의 發育이 良好하야 本道內各郡에 比하야 類例가 적은 成績을 이두엇다는데 이제 郡當局으로부터 發表한 數字를 보면 如左하다더라(端川)

掃立枚數 八、〇〇〇枚
產繭額 三〇、〇〇〇貫

海州水救音樂

三團體에서 主催

지난二十三日午後八時半 本報海州支局樓上에서 海州靑年會와 在日本海州留學生學友會及海州留學生親睦會等三團體의 代表者들이 모히어 이번 水災에 對하야 救濟策을 講究한 바 그 結果 七月二十八日下午八時半에 當地尋常小學校講堂에서 音樂會를 催하기로 하고 아래와 가티 委員十二名을 選定하야 一切를 準備케 하고 散會하엿다더라

金光鍊 趙麟增 康熙文 金明鎭 元鳳贊 吳鳳煥 李仁圭 崔昌圭 宋南奎 崔承翼 崔明鉉 金澈洙 (海州)

水災와 義州富豪

◇可驚할 今年의 水災가 如何히 悲絶慘絶한 것은 各新聞紙의 報道에 依하야 이미 周知하는 바이다 이 悲慘을 當하야 우리 社會에서 이 可憐한 동무들을 爲하야 救濟의 責任과 能力을 다 진 者가 果然 누구일가? 나는 여긔에서 무엇보다도 그 事實에 가장 實力잇는 富豪諸氏의 奮起를 苦待하는 바이다

◇試思하라 互義와 相濟는 文明한 社會에서 行할 바이니 먹을 것 업서 굼주리고 입을 것 업서 …

女子夜學會休學式

全北金堤靑年會의 經營인 女子夜學部夏期休學式은 지난二十一日午後九時半부터 金堤公普校第二敎室에서 朴淵氏司會下에 學事報告와 賞品授與式이 끗난 뒤 經營者側 金堤靑年會總務部李寧吉氏와 敎養部張準 氏와 敎員中李寅鎬氏、朴淵氏의 訓辭가 잇슨 後 同十一時에 閉式하엿다는데 同夜學會는 金堤에 잇는 各靑年會의 合同 前 金堤靑年會의 經營이던 마 來九月第二學期부터는 合同後 金堤靑年會에서 繼續하리라더라(金堤)

女子夜學五週年

紀念歌劇大會盛況

金海靑年會에서 女子夜學會를 經營한 지 滿五年동안에 여러 가지로 艱難辛苦를 거듭하야 오면서 이미 卒業生六十餘名을 내이엿고 또 現今에도 在學生九十餘名을 收容하고 잇는데 在來의 學制로는 甲乙丙三級 …

巨濟勞働夜學

松苗園作成計劃

巨濟 ? 時面城浦里에서는 里內有志靑年들이 無産勞働者를 爲하야 昨春부터 勞働夜學會를 設備하고 只今外지 繼續하는 中인 바 이제 그 維持의 內容을 更히 健全케 하고 夜學生全部가 一時間式 每日 三十把의 麻를 ?하기로 하고 十萬本以上의 松苗園을 作成하야 그로써 將來의 積立金을 삼겟다 하며 더욱 金振樹、金洛道、馬鳳鳴三氏는 義務的 敎授 外에 將來가 매우 有望하다더라(巨濟)

安東靑年委員會

慶北安東郡 安東靑年會에서는 去二十四日下午五時에 同會舘內에서 執行委員會를 열고 左記事項을 討議하엿다더라

一、 全鮮水災救濟에 關한 件
一、 夏期巡回講座에 關한 件
一、 聯合機關組織에 關한 件
一、 會費徵收에 關한 件(安東)

全朝鮮庭球大會 延期

黃海道載寧基督敎靑年會主催로 七月二十八九兩日間 載寧邑明新學校 「코-트」에서 全朝鮮個人庭球大會를 開催한다 함은 本報에 屢次報道한 바이어니와 今般大水로 因하야 不得已 延期하게 되엿다더라(載寧)

聞慶敎員講習開催

慶北聞慶郡敎育會主催로 去十九日부터 聞慶公立普通學校內에 敎員講習會를 開催하얏다는데 參加者는 二十五名에 達하엿스나 하며 講習科目은 唱歌、圖畫、理科等이오 期間은 五日間이더라(尙州)

淸雄連絡復活

月餘間을 두고 滯航되여 잇던 淸津雄基間의 連絡船은 其後 雄基一般人士가 朝郵에 對하야 屢次復活을 交涉한 結果 今般朝郵本社로부터 新隱岐丸(二百噸)되는 汽船을 就航식히기로 決定되여 去二十三日에 同船은 淸津港에 入港하엿다는데 淸雄來往이 만흔 便利가 잇스리라더라(淸津)

平壤孤兒救濟會

平壤孤兒救濟會에서는 同會定期總會를 去二十三日下午八時에 平壤基督敎靑年會舘內에서 開하고 會長吳胤善氏의 司會로 會務를 進行하얏는데 大正十二、十三年度의 決算報告와 十四年度의 豫算通過가 有한 後 孤兒院財團法人申請을 速히 할 것과 募集된 金에 對하야는 本會維持經營上 不得已 昨年四月 設立者會에서 決議한 바와 가티 一時 拂込을 變更하야 速히 現金收納에 努力하자는 것을 協議한 後 閉會하얏다더라(平壤)

赤旗아래 永訣式

慶北安東郡「豐山小作人會」執行委員 金文洙氏는 爾來數年間을 小作運動에 惡戰苦鬪하여 오든 바 本月十九日에 그만 同郡臥龍面佳野洞 自宅에서 逝去하얏는데 同會臥龍出張所에서는 同會舘內에 葬儀所를 設置하고 全朝鮮各勞農團體에 訃告를 하며 其他 葬喪에 對한 一切를 보아오든 바 지난二十三日에 同葬儀式을 同出張所會舘에서 擧行하엿는데 郡內各團體와 個人으로부터 吊喪하는 赤旗二十個旗가 와서 悲哀한 雰圍氣속에 永訣式을 擧行하엿다더라(安東)

平壤北金組 利子引下

其他積極策을 取

平壤北金融組合에서는 去二十五日午後八時半 同組合事務所內에서 市內各團體及組合의 代表者를 招請하야 懇談會를 開하고 同組合長 朴經錫書記長 朴承億評議員 鄭世勳三氏로부터 同組合의 過去狀況과 今後의 方針에 對하야 詳細한 說明이 잇섯는대 그 內容의 槪要는 七年前에 不過 數千 의 資金으로써 … 創立된 同組合이 一般市民에게 十萬圓의 貸出을 하게 되엿스며 今日의 盛況을 致하게 됨은 實務者의 忠勤한 努力과 時代 組合員의 相扶的 精神에 基因됨으로 생각하는 바 今番 本組合에서는 保守的 方針에서 一方으로는 積極的으로 從來의 保守的 …

鎭南浦仲組總會

鎭南浦仲介組合에서는 지난二十一日午前十一時에 同組合定期總會를 港町同組合內에 開催하고 組合長安 ? 氏 司會下에 前期中의 事業經過報告의 件外에 二三議案을 處決한 後 同日午後一時에 閉會하엿다더라(鎭南浦)

새동무會總會

黃海道載寧郡北栗面에 잇는 少年으로 組織된 새동무會에서는 定期總會를 오는 二十八日에 崇義學校講堂內에서 開催한다더라 (沙里院)

兒童聖經會開催

沙里院長老敎會에서는 夏期兒童聖經講習會를 左記方式에 依하야 開催하리라는데 特히 無産者兒에게는 敎科에 關한 書類紙筆等 一切를 無料로 配付한다더라

開學日字 來八月十二日
申請場所 德盛學校
申請期限 八月十一日外지
入學資格 滿八歲以上男女 (沙里院)

裡里庭球會開催

全北益山郡裡里에서는 當地基督敎靑年會主催로 오는 三十日에 個人庭球大會를 當地公立普通學校運動場에서 開催한다는데 參加金 及申請場所는 如左하다더라

一、 參加金 每一組一圓 但一組는 二人式으로
一、 申請期日은 七月廿九日外지
一、 申請場所는 三山醫院 (裡里)

順天燕子樓毀撤

全南順天郡의 南門樓인 燕子樓는 舊時代의 唯一한 建物로 七百餘年間 風流太守의 翫月을 專恣하던 곳이던 바 近來順天地方靑年會의 所有가 되야 昇平學院이란 學校를 設하고 數百名의 學生을 收容하여 오던 바 今般市街改正으로 因하야 毀撤케 되는데 價格七百二十圓으로 徐丙奎氏 手에 落札되야 지난二十日에 허러바리엇다더라 (順天)

市場問題解決

沙里院市民一同과 또 몃몃 分子의 私利가 問題되야 오래동안 頭痛을 알아오던 西北里市場保存會에서는 지난二十三日午後三時에 市內天道敎室內에 同會幹部諸氏가 會合하야 西照里市場保存問題를 圓滿解決하엿는데 이 問題에 消費된 費用에 對하야 그 善後策을 講究하는 中이라더라(沙里院)

泗川庭球會設立

慶南泗川郡邑內靑年諸氏의 發起로 會員相互의 親睦과 運動精神의 涵養을 目的으로 本月十九日에 泗川公立普通學校에서 設立總會를 開催하얏는데 入會會員은 四十餘名에 達하얏고 役員은 左와 如히 選擧되얏다더라

會長 近藤守光(普通學校長) 書記 申 … 運動部長 下學燮 …

公州實業協會總會

公州實業協會總會는 二十二日同會樓上에서 催하고 大正十三年度決算을 報告한 後 會長高山郡守로부터 出席者에게 茶菓의 饗應이 잇섯다더라(公州)

金海普校同窓會

慶南金海公立普通學校同窓會에서는 지난二十日午後二時 當校大講堂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臨時議長李圖氏司會로 會則一部를 改正한 後 左와 如히 任員을 選擧하고 茶菓會로 會하엿다더라

一、 會長 神山雌治郞(校長) 副會長 朴基洪 幹事 金 ? 裵泰煥 安承在 許於辰 女史 ? 於辰 ? (金海)

平壤印組總會

朝鮮人印刷業者로 組織된 平壤印刷組合에서는 去二十一日下午一時에 府內 ? 店里 ? 社印刷所內에서 臨時總會를 開하고 來八月八日 京城에서 開催되는 全朝鮮印刷業者總同盟에 出席할 件을 決議하얏는데 出席할 代表者는 李益謙 楊濟兩氏를 選定하엿더라(平壤)

沙里院水災救策

지난十九日의 洪水로 因하야 京義線沙里院에 千餘戶浸水와 其他 農作物에 莫大한 損害가 잇섯다 함은 旣報한 바이어니와 이에 對하야 黃海道當局에서는 去二十三日에 技員을 派送하야 水害의 對한 慘狀을 一一히 調査하엿는데 河川改修와 下水溝修築等 工事를 具體的으로 至急히 起工하리라더라(沙里院)

無產少年團紀念

馬山無產少年團에서는 去二十日下午九時에 石町勞働夜學校敎場內에서 團員約八十名이 모혀 創立第二週年紀念式을 擧行하엿는데 李寧守氏의 沿革報告가 잇슨 後 來賓側으로 玄鵬澤、金台朴東成諸氏의 和辭가 잇섯고 團員의 團歌와 萬歲三唱으로 閉會한 後 繼續하야 茶菓會가 잇섯다더라(馬山)

靈岩少年總會

靈岩少年團에서는 去十七日下午三時에 同團會舘內에서 臨時總會를 開하고 長富士元 ? 의 司會下에 團員一同團歌合唱으로 開會하고 左記事項을 議決한 後 다시 團歌合唱으로 無事閉會하엿다더라

一、 班員組織에 關한 件
一、 木浦에서 催되는 全鮮少年少女雄辯大會에 出演의 件
一、 義務金徵收의 件
一、 夏期集會日에 關한 件
一、 其他 (靈岩)

◇會計 鄭 ? 傳(泗川)

◇寸鐵◇

【安城】 鳳德佛敎布敎堂布敎師 朴德水는 佛敎는 姑捨하고 모히 針과 彩票賭博을 布敎하다가 放逐處分을 當하엿다 고 念佛에는 念弗이든 모양

◇

【錦山】 去廿四日錦山靑年會 第十回定期總會는 百五十餘의 會員中에서 出席者가 겨우 二十餘人에 不過하야 그만 流會되엿다는데 엇던 입은 曰! 『妓生과 酒肴를 排設하엿스면 多數出席하리라』 고 한다

◇

【麗珍】 所謂有志紳士 某某는 『新聞雜誌는 보을 게 잇서야지』 한다고 但妾의 집과 술집에 갈 時間에 문이지?

◇

【公州】 牛城面에는 近來三十大契라는 賭博이 생기어 田畓마지 기가 잇는 사람은 거의 다 亡하야 간다고 한다 警察當局의 實任上關係 有無를 알고자 한다

◇

【定州】 平北定州郡大田面長 朴鏞奎君은 自稱上官이라 하면서 部下書記더러 自己압헤서는 禁煙을 한다든가 可謂上官은 因火物인가?

水災義捐金

조선수해구제회에 온 것

七月二十一日分

金三百圓 京城 ? 京元實業株式會社 金二百圓 和田常市 金百圓 新明女學校職員生徒一同 金五十圓 同上 … 七月二十二日分 …

[以下 寄付者 名簿 — 判讀 困難部分 省略]

金百圓 小林藤右衛門 以下 明治町 金五十圓 京城出張所 金四十圓式 物部幸藏 總力本店 京城 湖川靜江 … 金十五圓式 小川龜太郞 小野丑松 高尾庄吉 坂井峰太郞 … 金八圓 角田仁三郞 … 金六圓 大原啓太郞 … 金五圓式 …

吉川金寶堂 中島貞信 利根淸治郞 原田憲二 木村駒次郞 平井勝太 大林勝己 島田利吉 石川病院 衣笠茂 倉橋潤吉 今村淸三郞 古野義行 松坂 … 竹下軍吉 阿部幸次 小野久太郞 安武愚澄 宗喜平 … 田尻半一 京城出張館 末 … 淸水豐四郞 大山幸藏 … 佐藤末雄 田中千才 池千松 石田菊松 大野市太郞 … 岡野幹雄 永田久次 妹尾郞 宮永修藏 奧津鐵也 佐貫吾 井上又四郞 中吉康博 … 光永工作所 友谷 ? 元 浦田百三 … 松本留市 小林蕉郞 … 栗原包太郞 石田 ? … 山口梅吉